

목포권

압해대교~송공항 도로 확·포장 시급

<국도 77호선>

신안군 압해대교에서 송공항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과 연결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하다.

신안군에 따르면 목포와 압해도를 연결하는 압해대교가 오는 6월 완공 예정이며 무안군 운남면 상내리와 압해도를 잇는 운남대교도 오는 2010년 완공된다.

그러나 압해도내 도로는 1차선에 불과해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 극심한 정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설날 연휴기간인 지난

연륙후 차량 급증 불구 섬 도로는 편도 1차선

운남대교~압해대교 구간도 노폭 2.5m 불과

5일부터 10일까지 압해대교가 임시 개통됐으나 국도 77호선에 차량이 밀리면서 안좌와 팔금·압태·자은 등 신안 중부권 4개 면을 찾는 귀성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운남대교에서 압해대교간 9

km 구간 역시 노폭이 2.5m의 편도 1차선에 불과해 확·포장 등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들은 국도 77호선과 연결도로 확·포장이 늦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압해대교와 운남대교 개

통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의 신속한 수송에도 차질이 예상돼 도로 확·포장을 위한 국비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2만3천여명의 귀성객과 5천500대의 차량이 신안 도서지역을 찾아 지난해의 6천400여명, 차량 3천200대 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목포 신항~중·일 항로 개설

천경해운·차이나 쉬핑 주 1회

목포 신항과 일본, 중국을 연결하는 항로가 개설된다.

천경해운(주)은 오는 21일부터 매주 1회 목포 신항을 출발해 일본 도쿄~요코하마~나고야를 운항한다.

중국 항로는 목포 신항~중국 다평(상해(남보))을 연결한다. 이미 연간 2만400TEU의 물동량을 확보했으며, 오는 3월부터 차이나 쉬핑(China Shipping)에서 주 1회 운항한다.

목포시와 목포 신항만(주)은 그동안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위해 천경해운, China Shipping 등 중국 선사 6개사와 대형화주 및 물류기업인 기아차, 글로벌비스, 중국 동영위에다가 기아를 대상으로 활발한 포트 세일즈를 펼쳐왔다.

목포시는 항로 개설이후에도 전남도,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목포 상공회의소, 목포 신항만(주) 등과 공동으로 수도권, 광주·전남북권 기업체를 방문해 추가 물동량 확보를 위한 포스트세일에 나설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 중기제품 판매 촉력

서한문 발송·청구 마련도

목포시가 지역 소재 중소기업 생산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고 시청 내에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시는 최근 ㈜행남식품과 대창식품, 선일식품, 동진 수산식품 등에서 생산하는 각종 제품 구매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각 기관과 단체에 발송했다.

또 시청 내 투자 통상과에 관련 제품 구입신청 창구도 개설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특성화 집중 교육...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

■신임 김호남 목포 중앙고등학교 이사장

“특성화 학과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 기업과의 산·학 연계교육을 통한 실용적 전문교육을 실시해 서남권 우수인재들이 국제적 감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일 목포 중앙고등학교 이사장에 취임한 근화건설 대표이사 김호남(58)사장이 지역 교육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이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투명한 학교 운영을 천명했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교장 초빙 공고를 내 명문 사학을 이끌 적임자 모집에 나섰다.

“유능한 스승 밑에 우수한 인재들이 육성되는 만큼 학연, 혈연 등에 의한 교직원 채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사부터 교장까지 필요한 모든 인원을 공개 채용하는 등 투명한 학교운영을 정착시켜 모

범적인 명문 사학으로 육성하겠다”



“조선 디자인·영상학과에

최첨단 실습 기자재 도입”

전국에 교장 초빙 공고

습니다”

또 교사들의 강의와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급제 도입

등 노력하고 공부하는 학풍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김이사장은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최첨단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정보처리학과와 조선 디자인 및 영상미디어학과에 최첨단 실습기자재를 도입하는 등 교육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지역 인재육성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확실한 투자없이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대양동 208번지에 위치한 중앙고등학교는 지난 1985년에 개교해 현재 1학년 6학년 180명, 2학년 6학년 114명, 3학년 3학년 64명으로 지금까지 총 3천4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llse@



삼학도 복원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지난 73년 매립으로 사라졌던 소·중·대 삼학도가 차츰 제 모습을 되찾고 있다. /최혜민기자 choi@kwangju.co.kr

‘전설의 섬’ 목포 삼학도 복원 순항

공정률 37%...수로·교량 등 완공 옛모습 찾아

‘전설의 섬’ 목포 삼학도가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총 사업비 1천243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0년 착수된 삼학도 복원 공사는 현재 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립으로 사라졌던 소·중·대삼학도가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삼학도는 지난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부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섬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오는 2011년 완공 예정으로 진

행중인 삼학도 복원 공사는 56만 9천㎡의 공원이 들어오고 호안수로 2천242m, 교량 12개소가 건설된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과 요트 마리나 시설, 어린이 바다학습 체험관, 해변관광도 조성된다.

특히 지난 해까지 소삼학도와 중삼학도에 흙을 쌓고 4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섬을 복원했으며 이 섬 사이에 수로 1.3km와 교량 5개소를 완공해 삼학도의 옛 모습을 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삼학도의 일부 시설물이 지난

해 3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각광 받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도 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삼학도와 중삼학도 사이에 수로 700m(너비 10~20m)와 교량 5개를 건설하고 일부 부지를 매입한다.

현재 삼학도 복원 공사의 전체 공정률은 37%로 내년까지 토목공사가 완료된다.

삼학도는 유달산에서 무술을 연마하던 한 젊은 장수를 그리던 세 처녀가 그리움에 지쳐 죽은 뒤 학으로 환생했으나 장수가 이를 모르고 쓴 화살에 맞아 죽어 솟아난 섬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도내 서울대 합격자, 목포가 최다 배출”

81명중 20명...순천 10명, 여수 7명 順

목포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올해 서울대 합격자가 전남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가 파악한 2008년도 전남도내 지역별 서울대 합격자 수는 81명으로 이 중 목포지역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순천 10명, 여수 7명, 광양 4명(자사고 제외) 등으로 집계됐다.

목포 지역 졸업생의 서울대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그 동안 목포시가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 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중 투자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오는 2011년까지 직·간접 교육 지원사업 10개 분야 48개 사업에 매년 평균 233억 원 등 모두 1천1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낮에는 다도해 비경...밤에는 황홀한 야경

목포시 내달말부터 야간 관광 유람선 운항

다음달 말부터 야간 관광 유람선이 운항해 목포의 황홀한 야경을 바다에서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목포시는 야간 유람선 취항을 위해 이달 말 완공 예정으로 갖바위 달맞이 공원 부근에 유람선 접안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유람선 사업자를 공모한다.

유람선이 취항하면 낮에는 고하도 등 그림 같은 다도해 비경을 즐기고 밤에는 평화광장과 갖바위, 목포항, 고하도, 목포해양대학교 앞 해안선의 야간 경관을 보면서 라이브 공연

을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간경관 조명을 관광 상품화해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Lists various locations and their corresponding numbers.

삼학도 내항에 요트 계류장

시, 70억 들여 50피트 30척 계류-7월 완공

목포시 삼학도 내항에 요트 계류장이 들어선다.

삼학도 요트 계류장은 국비와 시비 등 70억 원을 들여 50피트

트 30척을 계류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말 완공 예정이다.

또 주차장과 육상 적치장, 클럽 하우스, 레포츠 교육장 등 계류장 내 부대시설은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연계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심일부동산' (Daedong Simil Real Estate) featuring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Motel, bathhouse, and various commercial build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첨단월계공인중개사' (Advanced Moon-gye Real Estate) featuring '★급매매★' (Urgent sale) and '첨단중심 상업매매' (Advanced center commercial real estat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 (Court Auction Specialist) with '지지경매컨설팅(주)' (Jiji Real Estate Consulting) and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특급상가 매매·임대' (Premium Commercial Real Estate) and '북구 용봉동 무름 상가주택' (North-gu Yung-bong-dong Mureum Commercial Residenti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회사' (Court Auction Specialist Company) and '성공적 파트너 / (주)유선코리아' (Successful Partner / (J) Yuseon Korea).